

뜬 눈으로 지새운 '태풍의 밤'



비바람 몰아치는 광주 금남로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5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우산을 쓴 시민이 힘겹게 걸어가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초강력 태풍 힌남노 한반도 상륙... 항공·선박·열차 운행 중단 목포·여수·고흥·완도 등 전남 농어민들 피해 최소화해 안간힘

초강력 태풍으로 꺾히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6일 한반도에 상륙했다. <관련기사 6면>
5일 오전부터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항공·선박·열차 운행·운행이 중단되고, 초·중·고교 및 대학 수업은 일제히 비대면으로 전환됐다. 광주·전남에선 모든 공사 현장의 작업이 중단됐다.
6일 새벽 시간대에 태풍이 남해안을 통과한다는 소식에 목포와 여수, 고흥, 완도 등의 지역민은 밤새 마음을 졸여야 했다. 어민과 농민들도 태풍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여러 차례 태풍 피해를 겪었던 여수와 목포 저지대 주민들도 모래주머니를 쌓아 올리며 등 침수 우려에 노심초사 했으며, 여수·고흥·완도 등 해안가 가두리 양식 어민들도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

힘을 썼다. 지역 과수농가와 쌀 농가 등은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마땅치 않아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5일 밤부터 전남 남해안에는 시간당 50~100mm, 광주와 전남 내륙은 시간당 50mm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졌고, 순간 풍속 역시 남해안 초속 40~60m, 서해안 초속 30~40m, 광주와 전남 내륙에서는 초속 20~30m로 강하게 불었다. 특히 남해안은 태풍 진입과 만조(6일 새벽 5~오전 7시)가 겹침에 따라 폭풍 해일로 인한 해안가 침수피해 등이 발생했다.
힌남노는 6일 오전 7시를 전후해 부산 인근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도 그 영향으로 서해상에는 바람이 10~20% (시속 35~70km)로 불고 물결이 2~4m 높이로 높게 이는

만큼 선박 운항에 주의를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힌남노의 영향권에 든 광주시는 5일부터 모든 공사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 등 모든 공사 현장의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으며, 타워 크레인 등 설비 등도 단단히 고정했다. 또 배수로와 저수지를 미리 정비하고 비닐하우스 등 농업 시설물도 보강했다. 시는 지난 4일부터 차량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양동시장 북개주차장 등도 통제하고 있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6일에는 모든 공무원을 동원해 공사 현장 등을 집중 점검하고, 피해 현장 복구 등에 나설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태풍 '힌남노' 대비태세를 실시시간으로 챙기며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대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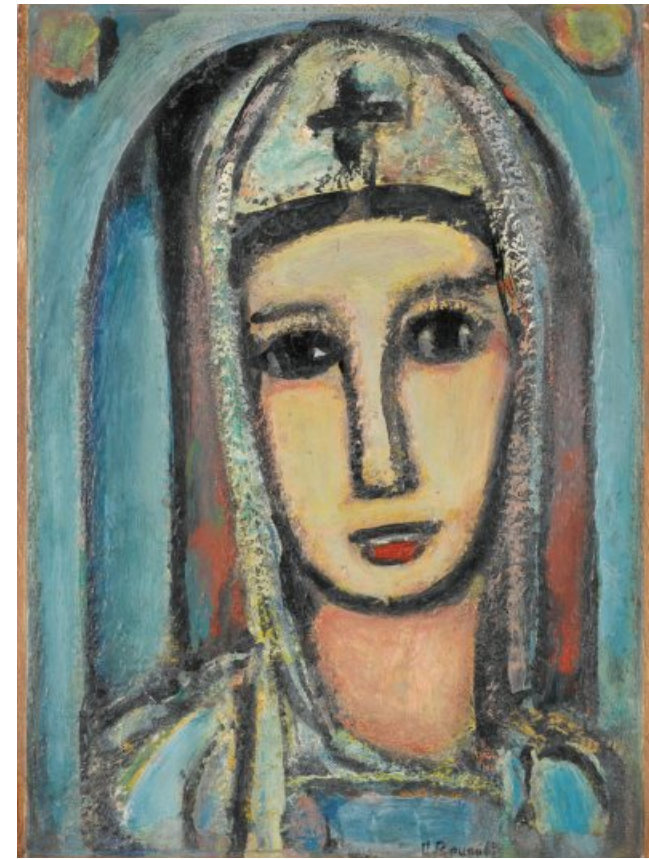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5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초강력 태풍 '힌남노' 상황을 집중 논의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도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상황을 공유하며 필요한 지원에 나섰다. 강인선 대변인도 이날 심야까지 취재진을 상대로 태풍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굿모닝 예향 - 광주 한바퀴·작가 박하선 ▶18·19면

시 페퍼스, 몽골 출신 어르형 우선 지명 ▶22면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



◀'베로니카'
1945년경·유채·50x36cm
풍피두센터 소장



조르주 루오

전남도립미술관·광주일보 주최 10월 6일 ~ 2023년 1월 29일

20세기 현대미술의 거장 조르주 루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관련기사 16면>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은 광주일보사는 전남도립미술관과 함께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전을 개최합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조르주 루오(1871~1958)는 특유의 격렬하고 자유분방한 선과 깊은 색상의 표현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구축해 나간 작가입니다. 20세기 유일한 종교 화가로 불리는 그는 성서나 종교적인 주제의 작품 뿐 아니라 사회의 약자였던 광대, 곡예사 등 삶과 전쟁의 비극속에 고통받는 인간들의 모습을 형상화해왔습니다.

모두 6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전시에서는 대표작 '미제레레(Miserere)'를 비롯해 '오렌지가 있는 정물' 등 프랑스 국립 풍피두 센터와 조르주 루오 재단에서 엄선한 유화, 판화 등 200여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또 루오가 사용했던 붓과 팔레트 등 유품도 함께 전시되며 루오 재단 회장 등이 참여하는 국제세미나도 열립니다.

특히 연계전시 '조르주 루오와 한국미술'전에서는 이종섭·구본웅·손상기 등 루오의 화풍이나 예술정신에 영향을 받은 작가 23명의 작품 50여점도 함께 선보입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일시 : 2022년 10월6일(목)~2023년 1월29일(일)
- 장소 : 전남도립미술관
- 주최 : 전남도립미술관, 광주일보, KBS광주방송총국,
- 주관 : KBS BUSINESS, 두미르
- 협력 : 조르주 루오 재단, 프랑스 국립 풍피두 센터, 말랭고 갤러리
- 후원 : 주한프랑스대사관

光州日報社 · 전남도립미술관

한경, 광주에서 인쇄 시작

한국경제신문이 8월29일자부터 광주에서 인쇄를 시작합니다. 광주에서도 서울과 똑같은 생생한 뉴스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주 청년주간

| 장소 |
광주 금남로 일대



소다 에스 수라 준코코 아스터&네오



솔지



T.A.N



딘딘



이재나언재나 양동근



09.23(금) 16:00 ~ 23:00

09.24(토) 15:00 ~ 22:00

09.25(일) 15:00 ~ 22:00